

#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운영

데이트폭력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전남경찰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전남경찰청은 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동안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데이트폭력은 지난 2016년 95건에서 2017년 205건, 지난해 36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5월기준 106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18건과 비슷한 수치이다.

범죄유형별로는 지난 2018년 기준 폭행과 상해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금·협박 24건, 성폭력 7건, 살인 2건, 살인미수 1건 등이 발생했다.

## 전남경찰, 내달까지 2개월 간

### SNS 등 활용 적극신고 유도

실제 지난 5월17일 목포에서는 남성이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옷을 벗기고 수면제를 강제로 먹여 실신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지난 4월28일 순천에서는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주막과 발로 여성의 얼굴을 폭행해 구속됐다.

경찰은 데이트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피해자와 피해를 알고 있는 지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 카

페 '여성긴급전화' 등 관련단체 '관공서·역·터미널 등 공공장소' '경찰관서 홈페이지·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신고된 데이트폭력 사건은 경찰서별로 구성된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중심으로 사건 접수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가해자의 경우 신고된 범죄의 범행동기, 피해정도, 전과반반 아니라 신고 되지 않은 여죄 및 재범 가능

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보복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마트위치 제공' '주거지 순찰강화' '피해자 사후모니터링 실시' '전문기관 연계' '긴급생계비·치료비 지원' 등도 병행한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연인' 관계라는 특성상 중대한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인식하고 있어 신고나 도움요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데이트폭력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 '콘서트 티켓' 매크로 구매

### 집중단속...145건 내사중

경찰이 유명 아이돌 그룹 등의 콘서트 관람권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 구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6월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12개 지방경찰청은 콘서트 관람권 매크로 대량 구매 의심 사건에 대한 내사를 진행중이다.

내사 대상은 지난 5월 발생한 대형 콘서트 관람권 매크로 대량 구매 의심 사례 3건, 지난 1월 유명 아이돌그룹 콘서트 관람권 매크로 구매 의심 사례 142건 등 모두 145건이다.

지난 1월에 발생한 사건의 경우에는 매크로 등을 이용해 아이돌그룹 콘서트 표 2652매가 대량 구매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해당 콘서트 표는 1인당 1~2매

의 예매 제한이 있었으나 동일 주소지로 최대 166매를 배송 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고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등 내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관람권을 구매한 상황이 드러날 경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관례를 분석하고 한국여성변호사회 지문 등을 구해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적 목적 뿐만 아니라 호기심으로 매크로를 이용해 관람권을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과거사 피해자' 검찰

### 재심청구 500명 육박

5·18 민주화 운동이나 부마민주항쟁 등 과거사 사건 피해자 487명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인서 검사장)는 과거사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이 확정된 487명에 대해 지난 2년간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6월 30일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 검찰이 과거사 사건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사파했다.

후속 대책으로 검찰은 2년간 법률적 지식 부족이나 경제적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 피고인 총 48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대상 사건은 긴급조치 위반과 1972년 계엄법 위반 등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위헌·무효가 선언된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 및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총 73건 중 공동피고인이 당사자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 확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구속 석방 후 기소유에 처분된 12명에 대해서도 직권 제기 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불법금품·가혹행위 인정 시 재심 개시 결정 즉시항고포기 ▲피고인을 위한 증거 적극 수집·제출 ▲재심 무죄 선고 시 일몰적 상소 지양 등 과거사 사건 공판 실무 메뉴얼을 마련했다.

뉴스



노랑어리연꽃 구경 온 흰뺨검둥오리. 지난 6월 28일 노랑어리연꽃이 활짝 핀 제주시 조천읍 남생이못에 흰뺨검둥오리 한 마리가 날아와 부드러운 착지를 하고 있다.

## 장성서 또 땅꺼짐...유성수 도의원 "진상조사 서둘러야"

### 지난달 25일 과거 땅꺼짐 발생한 농경지서 또 대형 땅꺼짐

11번째 땅꺼짐이 이어지고 있는 장성군 황룡면 와룡리에서 최근 또 땅꺼짐 현상이 발생해 주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의회 유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은 "지난 25일 오전에 과거 땅꺼짐이 발생했던 같은 농경지에서 또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다"고 6월 27일 밝혔다.

이 농경지는 오는 8월까지 진행 중인 '땅꺼짐' 현상 원인규명을 위한 지하 시추공 탐사 조사 등을 이유로 휴경 중인 논이다.

이번 조사는 고려시멘트가 운영하는 지하 석회석 채굴용 건물광산이 소재한 황룡면 와룡리 일대 농경지에서 지난 2008년부터 잇따르고 있는 땅꺼짐 발생으로 제기된 주민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추진되고 있

다. 최근 육안으로 관찰된 땅꺼짐 규모는 폐인 구멍이 지하로 내려갈수록 급격하게 넓어지는 등 규모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앞서 지난 4월 열린 도정질의에서 "장성 싱크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로 주민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유 의원은 싱크홀 발생 원인을 조사 중인 전남대학교 해외지원개발연구소의 용역조사 비용을 고려시멘트가 부담하고 용역조사기관의 연구 책임자가 고려시멘트 건물광산에 대한 학술용역 5건을 투명한 특수 관계인원에 따라 공정한 조사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을 함께 제기 했다.

그는 또 싱크홀 발생원인 조사를 위해 꾸려진 민관사협의체에 해당 피해 지역에 실제 거주 중인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유성수 의원은 "땅꺼짐 발생 시기가 장마를 앞둔 6월에 주로 집중됐는데 이번에도 같은 시기에 발생했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땅꺼짐이 발생할지 주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하루 빨리 공정한 용역 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하 시추공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와룡리 일대의 용역조사가 완료되면 '광산 굴착에 의한 인재냐' vs '지하수에 의한 자연현상이냐'를 놓고 주민대책위와 광산 운영사인 고려시멘트 간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분쟁이 해결될 지 주목된다.

김정환 기자



### 이런판결 저런판결

## '전속계약 위반' 스타강사

### 삼자루, 75억원 배상 확정

대법 "학원과 신뢰 파괴 주장하지만 인정근란"

대학입시교육 업체 이투스사와 무단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강사 '삼자루' 우형철씨가 회사에 지급할 손해배상 금액이 75억여 원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이투스가 우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씨는 이투스가 댓글 조작으로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이를 배척했다"며 "이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법률행위 해석 원칙 및 계속적 계약에서 신뢰 관계 파괴를 원인으로 한 해지권 발생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이투스와 전속계약을 맺은 우씨는 2015년 5월 '회사가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경쟁 학원이나 강사를 꾀하는 글을 작성하고 검색순위 조작 마케팅을 했다'며

전속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우씨는 특정 강사 홍보·비방 목적의 댓글조작을 형사고발하고, 다른 강사들과 '불만인강협의회'를 결성하는 등 활동을 해왔다.

이에 이투스는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경쟁업체와 전속계약을 맺어 강의를 제공했다"며 "이미 지급한 전속계약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으로 지급하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학원이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했거나 다른 강사를 옹호·비난하는 게시물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우씨의 계약해지 책임을 배상하도록 했다.

2심은 "계약에 댓글조작 금지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 20억원을 반환하도록 했다. 다만 1심에서 정한 위약금은 지나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해 총 75억8300여만원으로 배상금을 정했다.

뉴스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이는요... 자태치로에게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다면,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